**Retreat Protocol**

**세계관**

2070년 인류의 과학은 식량난을 이겨내고, 우주에 진출할 만큼 발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구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인류의 인구수는 식량난을 이겨냈던 2040년부터 푹발적으로 늘어 2070년 인구수는 약 300억명을 달성하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지구에는 약 300억명의 인구수를 감당할만한 자원이 없었다. 인구가 150억 명을 돌파할 당시 지구의 유력자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그 해결책으로 2060년까지 테라포밍이 가능할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인간이 살 만한 행성으로 지구인을 이주시키자는 테라포밍 프로젝트였고, 이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선도할 인물로는 지구가 우주에 활보하게 만들었던 우주기술 개발에 핵심인물인 니콜라였다. 이 니콜라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기술력을 집합시키기 위해서 지구 과학 연방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 지구 과학 연방 정부는 테라포밍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갈수록 지구의 모든 정부에 간섭할 권리를 갖추어 갔고, 지구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2058년 테라포밍 프로젝트가 완성되어갈 무렵 지구 과학 연방 정부는 테라포밍을 할 주체를 선발하였다. 주로 개발 도상국과 후진국이 그 중심이 되었다. 지구 과학 연방 정부는 태라포밍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지구의 발전에 있어 개발 도상국과 후진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2060년 테라포밍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성공적으로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10년 뒤, 테라포밍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테라포밍 프로젝트 이주민들은 정착지에서 나무와 커피, 바나나와 같이 지구에서는 환경오염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그 수가 극히 적어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자원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지구에 수출하며 수익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 정도는 지구의 원주민들을 능가할 정도였다. 지구에서는 정착지가 부유해짐에 따라 정착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였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갔다. 지구 과학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착지를 견제하기 위해 정착지를 식민지로 등급을 격하하였고 정착지의 모든 정착민들에게 수입의 40%의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고 지구의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정착지의 천연자원의 가공을 금지시켰다. 그렇게 정착민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상품들을 수출할 수 없었으며 그 물품들을 지구에서 웃돈을 주고 구해 야하는 상태가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부조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낳았으며 정착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착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착지는 지구의 식민지로서 지구에서 총독이 파견되었고, 총독은 정착민들 중 1명을 선발하여 고용하였다. 부관은 정착지에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을 정착민들의 불만들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들은 총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고 만약 함구령을 어기는 경우 반동분자로 지정하여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명령을 들은 부관은 이 명령을 거부하였고 부관은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으로 구금과 동시에 교수형이 내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정착민들은 극히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폭력 시위로 이어져 지구에서 오는 함선이 있는 정류장을 점거 및 군함을 탈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노는 지구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지구인에 대한 정착민의 살인율이 늘어나자 지구 과학 연방 정부는 정착민들에 대한 계엄령과 수상한 자에 대한 즉결 처분 명령하였다. 이에 정착민들은 극도로 분노하였고 정착민들의 단결과 지구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선전포고로서 정착민들은 정착지의 정부를 탈취하고 부관의 처형을 명령했던 총독을 포박 및 처형을 진행하고 부관을 구출하여 정착지의 리더로 추켜세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부관의 처형 명령이 떨어진 7주일 후의 이야기이다.

1년 뒤

정착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1개의 우주 해병대의 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로서 지구와 정착지의 전면전이 시작되게 되었다.